

#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ITU의 열린대화

▣ 박민정\*

## 1. 개요

2013년 10월, ITU 하마둔 푸레 사무총장은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international Internet-related public policy issues)에 대한 일련의 비공식 협의 시리즈인 ‘열린대화(open talks)’ 행사를 진행하였다. ITU 본부에서 진행된 ‘월드카페(World Cafe)’를 시작으로 ‘타운홀 회의(Town-hall meeting)’,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Online Crowdsourcing platform)’의 형태로 진행된 동 행사는 세계정보사회 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에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인식한 다자간협약(multistakeholder) 모델 내에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WSIS는 ‘정보사회를 위한 튀니스 어젠다(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를 통해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다자간협약 모델을 공인하였으며, 다자간협약을 구성하는 정부, 민간부문, 시민단체, 정부간기구, 국제기구 등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바 있다.<sup>1)</sup> 한편, 지난 5월에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02)570-4345, mjpark@kisdi.re.kr

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세계전기통신/ICT정책포럼(World Telecommunication/ICT Policy Forum, WTPF-13) 등 여러 장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이 기대되고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어 많은 논의를 이끌었다.

본고에서는 ITU차원에서 이뤄진 이러한 논의의 최근 동향과 ITU 사무총장이 비공식적으로 수행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자간협의 모델 내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열린대화’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WTPF-13 및 2013년 ITU 이사회의 관련 논의

지난 5월 제네바에 개최된 제5차 WTPF(WTPF-13)은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9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3일간의 회의 결과 WTPF-13은 총 6건의 오피니언(opinion)<sup>2)</sup>을 합의를 통해 채택하였다.

한편, WTPF-13 기간 중, 브라질 정부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다자간협의 모델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오피니언 초안을 제안하였다. 동 초안은 다자간협의 접근방식을 원칙으로 인지하며, 그 안에서 정부의 역할을 실현화(operationalization)할 수 있는 방안의 논의 및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3)</sup> 회의 참가자들은 동 오피니언 초안에 대한 장시간의 논의 끝에, 이슈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시간제약상 세부문구에 대한 합의가 어려움을 사유로 오피니언 초안을 채택하지 않고, 논의내용을 WTPF-13 의장보고서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sup>4)</sup>

1) WSIS(2005), 35항

2) 오피니언 1. 장기적 연결성 제고를 위한 IXP 설립  
오피니언 2. 브로드밴드 확산 지지  
오피니언 3. IPv6 전환을 위한 역량개발  
오피니언 4. IPv4에서 IPv6로의 전환  
오피니언 5.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다자간협의 모델 지지  
오피니언 6. 강화된 협력 과정 지지

3) ITU(2013a)

WTPF-13 참가자들은 동 논의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대부분 인정하였으나, 그 논의의 장이 어디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보였다. 논의의 장의 예로 ICANN 정부자문위원회,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ITU 이사회작업반(Council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Internet-related public policy issues, 인터넷 이사회작업반) 등이 제시되었으며, 미국 등 참가자들은 인터넷 이사회작업반에서 동 논의를 지속할 경우, 현재 회원국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해당 회의의 참여권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ITU 사무총장은 2013년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인터넷 이사회작업반의 참여권 확대를 요청하겠다는 약속하였다.<sup>5)</sup>

2013년 6월, ITU 이사회에 사무총장은 WTPF-13 결과를 보고하며, 차기 회의부터 인터넷 이사회작업반 참여회원의 범위를 확대시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로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논의의 효율성 등을 위해 동 작업반은 우선 정부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이사국은 이는 결국 2014년 전권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재확인하고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이사회는 동 논의에 대해 이사회작업반에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사무총장이 이사회 승인없이도 비공식전문가그룹(informal expert group)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sup>6)</sup>

### 3. ITU 사무총장의 열린대화 주요 결과<sup>7)</sup>

ITU 사무총장은 WTPF-13에서의 건설적인 논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이사회 논의사항을 참고하여 국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 특히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자간협의 모델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비공식 협의인 ‘열린대화’ 행사를 진행하였다. 동 행사는 2013년 10월 8일 개최된 ‘월드카페’ 행사를 시

4) ITU(2013d)

5) ITU(2013f)

6) ITU(2013e)

7) ITU(2013b)

작으로, 2013년 IGF 회의 중 개최된 ‘타운홀 회의’,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온라인 클라우드소싱 플랫폼’ 등 3개 형태로 진행되었다.

## (1) 국제 인터넷 공공정책에 대한 월드카페

2013년 10월 8일 제네바 ITU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 인터넷 공공정책에 대한 월드카페<sup>8)</sup>는 ITU 비회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 약 50여명이 참여하였다. 동행사는 다음의 3건의 질문을 중심으로 견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 질문 1: 인터넷의 다자간협의 모델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질문 2: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요이슈는 무엇입니까
- 질문 3: 정부가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월드카페의 진행 결과, 총 105건의 아이디어와 제안이 도출되었다.<sup>9)</sup> 질문 1, 인터넷의 다자간협의 모델 안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는 의장(convener) 및 촉진자(facilitator)로서 여러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중재, 협의하며 이해관계자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였다. 또한, 정부가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위해 불법적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하며, 인터넷 세상에서 공익이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 제시되었다. 온라인 상 인권보호도 다자간협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정부의 역할이 큰 부분으로 제시되었다.

질문 2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신뢰성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사생활, 표현의 자유,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오프라인 법과 동일한 온라인 규제 프레임워크 제공이 정부의 주요 역할로 강조되었다. 또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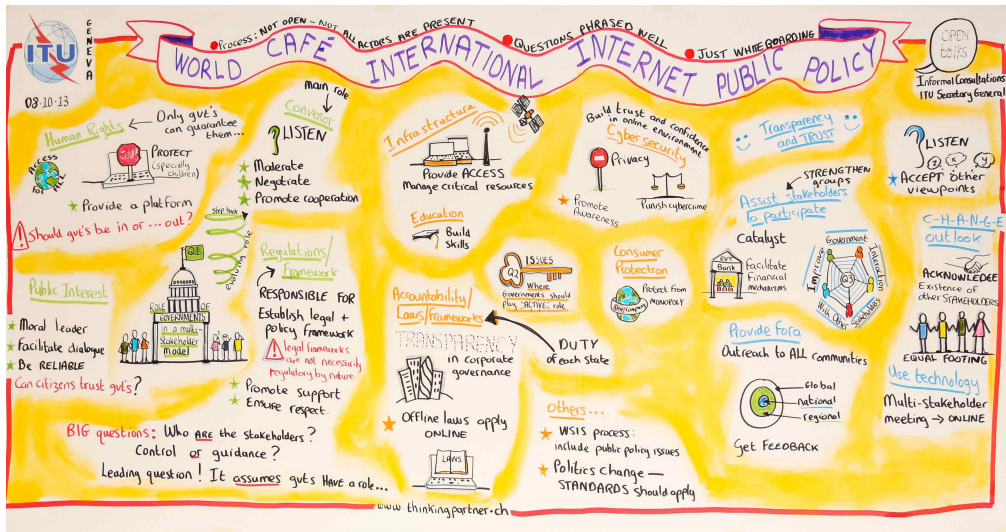
8) ITU의 ‘월드카페’는 모든 참가자가 여러 작은 테이블에 둘러 앉아 테이블을 돌아가며 다양한 참가자와 그룹토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9) ITU(2013c)

부는 핵심 국가인프라를 보호 및 관리하고, 사이버보안 활동을 수행하며, 인터넷 사용자 특히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및 교육 지원이 요청되었다.

질문 3, 정부가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정책수립 절차에 있어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정책토론에 포럼, 공청회 절차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이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추가 인센티브 제공, 재정메커니즘 촉진 등)할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온라인 미팅 등 전기통신기술(ICT)을 도구로 사용하여 보다 많은 이들과 대화 및 상호작용할 것이 요청되었다.

[그림 1] 국제인터넷공공정책에 대한 월드카페 결과물



자료: ITU(2013c)

## (2) 2013년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중 개최된 타운홀 회의

2013년 10월 2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8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기간 중 ITU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자간협의 모델 내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타운홀 회의’를 개최하였다.<sup>10)</sup> 동 회의에는 시민사회, 민간부문, 국제기구 및 정부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sup>11)</sup>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참가자들은 세계 각 국의 개발 상황, 재정 및 문화적 구조에 따라 다자간 협의의 모델이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개도국, 그리고 민간 부문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국가의 경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인터넷 제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부분을 자국정부에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자국민의 이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정부가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다른 참가자들은 자국내 다자간협의 모델 적용의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는 다른 이해관계자의 견해와 접근방식에 개방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논의 과정에서 기술부문 및 인터넷 신규업체가 다자간협의 모델에 참여해야 함이 제안되었으며, 정부는 정책이슈(온라인 아동보호 등)를 다룸에 있어 시민사회의 존재를 인지하고 적절한 자금지원 제공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지지하고 촉진할 것이 요청되었다.

한편, 참가자 중 일부는 다자간협의 모델의 전반적인 효과성이 있는지, 또한 현 글로벌 이해관계자 모델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진실로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였다.

### (3) ITU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ITU는 또한, ITU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sup>12)</sup>을 통해 모든 사람이 동 이슈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통한 비공식 온라인 공청회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개시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10건의 아이디어와 40건의

10) <http://www.intgovforum.org/cms/component/content/article/1348>

11) <http://www.youtube.com/watch?v=pULgafBCWjc>

12) <http://ideas.itu.int>

코멘트가 게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세상에서 정부는 투명하고 중립적인 조정자, 지역 및 글로벌 네트워크의 지속적 상호연결을 보장하는 규제자로 인식되었으며, 결정수립 절차에서 다양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사이버범죄, 사이버보안 이슈는 개별국가 단독이 아닌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개도국과 선진국간 사이버위험의 실질적인 차원 및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긴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이 언급되었다. 한편,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는 온라인 상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로,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규칙의 표준 수립 등), 벽지지역의 연결성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부와 타 이해관계자간의 상호작용 제고를 위해, 정부가 투명성을 보다 제고해야 하며, 인터넷 거버넌스 내에서 정부의 역할 이행을 위한 건설적 의견 및 정보교환을 위해 국가/국제적 차원의 다자간협의 포럼을 설립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ITU 차원에서 국제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ITU 회의의 작업문서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 4. 결 어

ITU는 일련의 비공식 협의절차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자간협의 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 청취 결과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보유하고 있음에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다. 정부는 인터넷 다자간협의 모델이 잘 작동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이들의 참여와 경험공유를 촉진하며, 이들간 대화와 활동의 중재자 및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온라인 세상의 안전, 표현의 자유, 인권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및 법적 도구의 제공이 강조되었다.

정부가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는 사이버보안 및 불법적인 온라인 활

동에 대한 대응이 제기되었으며, 취약계층 대상 교육, 접근성 및 연결성 확대 등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 강조되었다.

또한, 정부가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정책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상호작용 공간을 확대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이 요청되었다.

한편, 이러한 절차에서 국가별 다양한 사회적, 재정적, 문화적 차이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배경이 각 국의 다자간협의 모델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다자간협의 모델 논의에 있어 정부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서 역할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 공공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동 논의는 ITU 인터넷 이사회작업반의 참여권 확대여부와 함께 내년 4월에 WSIS 1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WSIS+10 고위급 행사’ 및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4년 ITU 전권회의 등 많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자간협의 모델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함께 고려하며, 정부가 어떻게 하면 보다 현실가능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WSIS (2005). “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ITU (2013a). Contribution from Brazil: Draft Opinion WG3 - Operationalizing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Multistakeholder Framework for Internet Governance, 제5차 WTPF 문서, Document WTPF - 13/5(Rev.1).

\_\_\_\_ (2013b). Information Documen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Outcome of the Informal Consultations on International Internet-related Public



Policy Issues.

ITU (2013c). ITU Secretary-General's Open Talks Series: World Café on International Internet Public Policy final report.

\_\_\_ (2013d). Report by the Chairman: Fifth World Telecommunication/ICT Policy Forum 2013, 제5차 WTPF 문서, Document WTPF-13/16(Rev.1).

\_\_\_ (2013e). Summary Record of the Ninth Plenary Meeting, 2013년 ITU 이사회 문서, Document C13/120.

\_\_\_ (2013f). WTPF-13 Report on Outcome, Reports by the Secretary-General, 2013년 ITU 이사회 문서, Document C13/64.

<http://itu.int>

<http://ideas.itu.int>